

## 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 내방

# 파주서 우의 도모 친선 시합

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내방한 국외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과 파주NFC에서 축구교류전을 가졌다.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는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했으며 양 도시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정과 친목 도모, 국제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 유소년 축구교류는 2005년 10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시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 중 하나이다.

송유면 부시장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짊어지는

유소년들이 축구교류를 통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다노시 축구협회 관계자 및 선수들로 구성된 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23명은 26일 파주시 유소년 선수들과 친선 시합을 갖고 27일에는 DMZ 관광을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하다노시는 동경에서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파주시와 농업, 스포츠, 문화,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이성훈기자



국의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과 친선 시합을 가진 후 한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일간경기

2016년 03월 28일 월요일  
015면 스포츠

### 파주시-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 교류전 펼쳐

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내방한 국외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과 파주NFC에서 축구 교류전을 가졌다.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는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며, 양 도시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정과 친목 도모, 국제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 유소년 축구 교류는 2005년 10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시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사업 중 하나이다.

송유면 부시장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짊어지는 유소년들이 축구교류를 통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정정 당당한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다노시 축구협회 관계자 및 선수들로 구성된 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23명은 지난 26일 파주시 유소년 선수들과 친선 시합을 갖고, 27일에는 DMZ 관광을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하다노시는 동경에서 6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파주시와 농업, 스포츠, 문화,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성기홍 기자 sgh@1gan.co.kr

## 파주시, 일본 하다노시와 유소년 축구 교류



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 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내방한 국외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 유소년 축구교류단과 파주NFC에서 축구 교류전을 가졌다.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는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며, 양 도시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정과 친목 도모, 국제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 유소년 축구 교류는 2005년 10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도시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사업 중 하나이다.

송유면 부시장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짊어지는

유소년들이 축구교류를 통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정정 당당한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다노시 축구협회 관계자 및 선수들로 구성된 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23명은 26일 파주시 유소년 선수들과 친선 시합을 갖고, 27일에는 DMZ 관광을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하다노시는 동경에서 60 km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파주시와 농업, 스포츠, 문화,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규환 기자/jonghapnews.com